



## 2012년 일본 생명보험 설문조사 결과 및 시사점

박정희 선임연구원

### 요약

■ 2012년 일본 생명보험의 세대가입률(간포생명 제외)은 85.8%로 1994년 95.0%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시현하고 있으며, 세대 가입건수는 전회대비 0.1건 감소한 4.1건, 연간납입보험료도 3.8만 엔이 줄어든 41.6만 엔을 기록함. 이처럼 생명보험시장이 축소되는 원인으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생명보험시장 포화 등이 주된 요인이라 할 수 있음. 그러나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도 최근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질병과 노후자금에 대한 상품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현재 민영보험에 주로 가입하는 이유로 질병 및 입원(59.6%), 유족보장(51.7%)을 주요 항목으로 꼽은 반면, 노후생활자금이 라고 답한 응답자는 8.6%에 불과해 장수리스크에 대한 준비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노후생활자금에 대해서는 74.4%가 불안하다고 응답해 향후 노후관련 상품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임. 또한 향후 가입의향에 대해서는 ‘추가 가입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31.0%로 전회대비 소폭 상승하였음.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2012년 생명보험 가입률이 전년대비 1.0%p 감소한 86.3%로 나타났으며, 주요 가입상품으로는 일본과 같이 질병보장보험(70.3%)과 사망보장보험(23.9%)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반면, 향후 추가 가입의향에 대해서는 ‘추가 가입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35.7%로 일본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었으나, 전년대비로는 7.4%p 급감해 경제적 여유가 부족한 상태로 보임. 생명보험은 고령화 사회의 사회 안전망으로서 역할이 기대되는 산업인 만큼 노후소득과 질병 등에 대한 다양한 상품가입으로 늘어난 기대 수명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 생각됨.

■ 2012년 일본 생명보험 실태조사<sup>1)</sup>에 따르면, 일본의 생명보험 세대가입률(개인연금보험 포함)은 90.5%를 기록해 전회 가입률인 90.3% 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음.

● 그러나 간포생명을 제외한 종래의 집계방식으로 전 생보 세대가입률을 따져보면 85.8%로 1994년 95.0% 이후 하락세를 지속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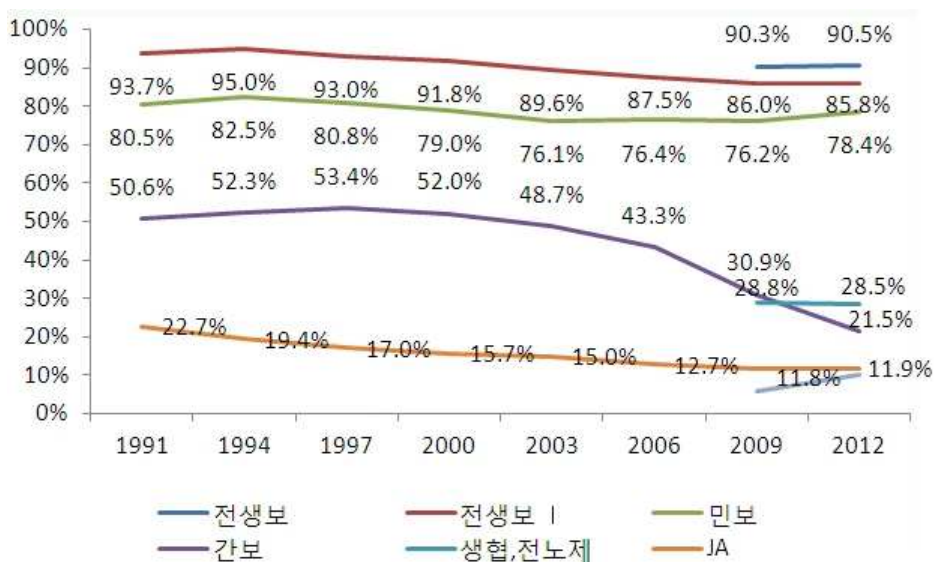
– 우리나라 생명보험 가구당 보험가입률(우체국 및 농수협공제 포함)<sup>2)</sup>은 2012년 86.3%로 나타

1) 일본 생명보험문화센터가 1965년부터 3년에 한 번씩 ‘생명보험에 관한 전국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나 일본이 우리나라 보다 4.2%p 높은 수준임.

- 기관별 세대가입률에 있어서는 민영보험(간포생명 포함) 78.4%(전회 76.2%), 생협·전노제 28.5%(전회 28.8%), 간보 21.5%(전회 30.9%), JA가 11.9%(전회 11.8%), 간포생명이 10.3% (전회 11.85) 순으로 나타났음.<sup>3)</sup>

〈그림 1〉 세대가입률 추이



주: 전생보 I은 간포생명을 제외한 종래 방식의 집계 수치임.

■ 세대 가입건수(개인연금 포함)는 전 생보에서 4.1건으로 지난 회에 비해 0.1건이 감소했으며, 우리나라 세대 가입건수에 비해서는 0.3건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기관별 가입건수는 민영보험 3.1건(전회 2.9건), JA 2.3건(전회 동일), 생협·전노제 2.2건(전회 동일), 간보 1.9건(전회 2.2건)으로 나타났음.
- 세대주와 아내의 가입건수는 각각 1.8건과 1.7건으로 전회와 동일하였으며, 자녀의 가입건수는 0.1건 감소한 1.2건인 것으로 나타났음.
  - 반면, 우리나라 생명보험의 개인 가입건수는 기혼여성이 1.7건으로 기혼남성(1.6건)에 비해 높았으며, 미혼남성과 여성은 각각 0.8건과 1.2건으로 나타났음.

2) 보험연구원에서 매년 발표하는 ‘2012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의 통계 현황임.

3) 민보(民保): 민간 생명보험회사 또는 그 회사의 생명보험 상품, 생협·전노제(生協全勞濟): 전국생활협동조합연합회, 일본 코프공제생활협동조합연합회, 전국노동공제생활협동조합연합회 3기관과 그 상품. 간보(簡保): 2007년 10월 우정사업 민영화 이전에 가입한 간이(簡易)보험 상품으로 현재 독립행정법인 우편저금, 간이생명보험기구가 관리하고 있으나 신규계약 모집은 하지 않음. 간포생명: 2007년 10월 간이보험의 민영화에 의해 설립된 기관 또는 상품.

■ **생명보험 가입세대의 연간 납입보험료(개인연금 포함)는 41.6만 엔으로 이전 조사에 비해 3.8만 엔이 줄어들었음.**

- 이 같은 보험료 감소 요인으로는 세대수입 감소에 따른 경제적 영향과 상대적으로 가입률이 낮은 고령자 세대가 증가했기 때문임.
- 기관별로는 민영보험(간포생명 포함) 36.5만 엔(전회 37.4만 엔), JA 30.4만 엔(전회 30.1만 엔), 간보 24.1만 엔(전회 28.5만 엔), 간포생명 23.4만 엔(전회 23.4만 엔), 생협·전노제 8.2만 엔(전회 8.4만 엔)으로 각각 집계되었음.

〈표 1〉 세대 연간 납입보험료 및 성장률

(단위: 만 엔, %)

연도	전생보		민영보험		간포생명		간보		JA	생협·전노제		전생보		
2012년	41.6	-3.8	36.5	-0.9	23.4	-1.5	24.1	-4.4	30.4	0.3	8.2	-0.2	41.8	-3.7
2009년	45.4		37.4		24.9		28.5		30.1		8.4		45.5	

- 반면, 우리나라의 월평균 납입보험료는 41만 원으로 전회에 비해 1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1976년 1차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구당 가입건수와 월 납입보험료가 감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임.<sup>4)</sup>

■ **개인연금보험의 세대가입률은 2012년 23.4%로 나타나 전회대비 0.6%p 상승하였으며, 가입세대의 기본연금연액(연금수령 개시 1년간 수취할 수 있는 연금의 연액)<sup>5)</sup>은 117만 2천 엔으로 전회대비 5만 3천 엔이 증가하였음.**

- 세대원별 기본연금연액은 세대주 평균이 109.7만 엔(전회 94.9만 엔), 배우자 평균 68.4만 엔(전회 76.4만 엔)으로 나타남.
  - 그러나 공적연금 이외 부부의 노후 필요생활자금액(237.6만 엔)<sup>6)</sup>과 관련해 보면 기본연금연액과 노후 필요생활자금에는 차이가 발생함.
- 개인연금보험 가입세대 가운데 보험료를 납입 중인 세대가 1년 동안 불입하는 개인연금보험의 보험료는 평균 19만 3천 엔(전회 18만 9천 엔)이며, 일시불 보험료는 평균 619만 엔(전회 531만 엔)으로 나타났음.

4) 생명보험협회가 1976년부터 3년에 한 번씩 전국 2,000가구를 대상으로 방문·조사한 '생명보험 성향조사' 수치임.

5) 세대주와 배우자의 합계액임.

6) 2012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60~64세 그룹의 필요생활자금은 평균 매월 19.8만 엔으로 나타남.

- 한편, 개인연금보험의 가입세대주 보험혜택 시작연도는 60세 이상이 32.1%, 65세 이상은 25.6%이며, 배우자의 보험혜택은 60세 이전이 29.3%, 65세 이상은 22.0%로 나타났음.

〈표 2〉 세대주 개인연금보험의 혜택 개시 연령(전 생보)

(단위: %)

연도	59세 이하	60세	61~64세	65세	66~69세	70세 이상	모르겠음
2006	5.3	31.1	7.6	27.5	2.7	5.7	27.1
2009	5.6	30.5	5.3	25.8	3.0	7.6	26.7
2012	3.9	32.1	6.1	26.6	3.5	8.2	25.9

- 민영보험의 보장기능별 세대가입률에 있어서는 의료보험·의료특약 92.4%, 암보험·암특약은 62.3%, 암보험·암특약의 입원비 지급액(일 기준)은 평균적으로 세대주 1만 2,400엔, 배우자 1만 200엔임.
  - 그 외 특정의료보장보험·특정질병보장특약이 43.4%(전회 41.0%), 특정손상특약 29.3%(전회 29.4%), 질병장해특약·중증만성질환보장특약 17.9%(전회 16.2%), 간병보험·간병특약 14.2%(전회 13.7%)이며,
    - 간병보험·간병특약의 간병비지급액(월 기준)은 평균적으로 세대주 9만 8천 엔(전회 9만 엔), 배우자 7만 5천 엔(전회 7만 2천 엔)이며, 통원특약은 43.8%(전회 42.2%) 수준임.
  - 민영보험의 가입 목적으로는 ‘의료비나 입원비 때문’ 59.6%(전회 59.7%), 만일의 사태에 가족의 생활 보장을 위해서가 51.7%(전회 53.8%)로 높은 응답률을 보여 의료보장과 유족보장이 주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음.
    - 우리나라의 생명보험 종목별 가입률에서는 질병보장보험이 70.3%, 사망보장보험이 23.9%로 나타나 의료보장에 대한 수요가 일본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3〉 민영보험 가입 목적(복수응답)

(단위: %)

연도	의료·입원비	유족보장	장례준비	재해·교통 사고대비	노후생활 자금	자녀교육·결혼자금	저축	간호
2012년	59.6	51.7	13.7	8.8	8.6	6.7	3.1	1.9
2009년	59.7	53.8	13.1	12.0	8.2	9.2	4.6	2.8
2006년	59.5	54.4	12.8	14.1	7.9	7.2	4.9	3.3
2003년	56.3	60.5	12.5	19.4	8.9	10.9	7.1	4.4

■ 2012년 민영보험회사(간포생명 제외)의 가입채널은 ‘생명보험회사의 영업직원’이 68.2%(전회 68.1%)로 가장 많았으며, 통신판매가 8.8%(전회 8.7%), ‘보험대리점의 창구나 영업직원’ 6.9%(전회 6.4%), 은행 등이 4.3%(전회 2.6%) 순으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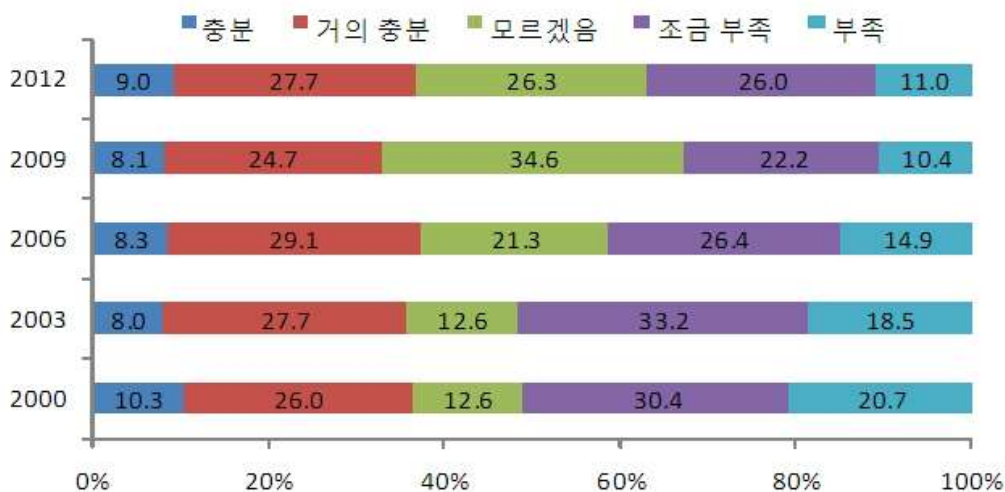
- 우리나라 생명보험 가입자의 대부분은 대면채널(보험설계사 및 보험회사의 소속대리점)을 통한 가입이 96.6%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인터넷 및 통신 등의 비대면채널은 2.6%, 은행 등은 1.6% 수준으로 나타남.
  - 일본의 비대면채널의 비중은 8.8%인데 반해 우리나라 생명보험의 비대면채널 비중은 3% 이하에 불과한 수준임.

■ 보험가입 내용이 생활설계에 충분히 보장되는가라는 질문에는 ‘충분히 보장된다’와 ‘거의 보장된다’는 긍정적인 답변이 36.7%인 반면, ‘불충분하다’, ‘충분하지 못하다’는 부정적인 답변이 37.0%로 나타났음.

- 보장내용 충족도의 긍정적인 답변과 부정적인 답변 모두 전회대비 각각 3.9%p, 4.4%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르겠다는 응답의 비중이 8.3%p 크게 감소하였음.

〈그림 2〉 가입보장내역에 대한 충족감

(단위: %)



■ 현재 생활보장에 대한 준비상황에 대한 질문에서는 세대주의 질병이나 부상에 따른 치료비 및 입원 시 의료비 준비가 52.7%로 가장 많았으며, 세대주의 만일의 경우에 대비한 준비자금이라는 답변이 47.1%, 배우자의 질병이나 부상에 따른 치료 및 입원비 준비가 44.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그 외 답변으로는 배우자의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는 준비자금 35.1%, 세대주의 노후생활자금 28.1%, 배우자의 노후생활자금 22.2% 등으로 나타났음.
  - 반면, 아이가 질병이나 부상 치료 및 입원 목적으로 한 의료비 준비는 24.6%였으며, 아이의 만일의 경우에 대비한 준비자금은 19.0%, 아이들의 노후생활자금은 3.0%인 것으로 나타났음.
- 미래 준비하고 싶은 생활보장 항목에 대해서는 세대주의 노후생활자금 28.3%, 배우자의 노후생활자금 24.3%, 세대주의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준비 자금이 21.1%로 나타났음.
  - 반면, 향후 줄이고 싶은 보장 항목에 대해서는 ‘특별히 없다’가 72.0%를 차지하였음.

■ 세대주 만일의 경우에 대비한 가족의 필요생활자금 수준은 331만 엔으로 16.5년간 지급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 이는 2000년 413만 엔의 필요생활자금이 17.2년간 지급될 필요가 있다는 응답에서 최근 10년간 금액과 보장기간이 점차 축소되고 있음.
  - 세대주의 부재 시 필요생활자금을 세대주 평균 가입의 보통사망보험금액으로 나누면 충족률이 2012년 30.6%를 차지해 2000년 35.4%에 비해 보장 충족이 점차 축소되고 있음.
- 현재 필요생활자금 충족률로 세대주 부재 시 불안감 정도에 대해서는 불안하다는 답변이 69.5% (전회 71.6%)로 나타나 전회대비 2.1%p 감소하였음.
- 세대주 부재 시를 대비하여 현재 준비하고 있는 필요생활자금 수단으로는 생명보험이 56.5%(전회 57.5%)로 가장 많았으며, 예금 및 신탁 42.0%(전회 43.0%), 부동산 19.7%(전회 21.3%)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각각의 수단에서 기대하는 필요생활자금의 기대 수준은 2000년대 이후 점차 축소되는 반면, ‘기대하는 것이 없다’는 응답의 비율은 2000년 15.5%에서 22.2%로 점차 확대되고 있음.

■ 부부가 노후생활자금으로 공적연금(후생연금, 국민연금 등) 이외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금액에 대해 60~64세 그룹과 65세 이상 그룹으로 구분하여 조사한 결과, 60~64세 그룹은 평균 매월 19.8만 엔(이전 20.6만 엔), 65세 이후는 매월 15.8만 엔(이전 16.4만 엔)으로 나타남.

- 분포도를 살펴보면, 세대주 60~64세 사이는 20~25만 엔 그룹이 29.9%로 많았고, 65세 이상은 10~15만 엔(27.7%)이 가장 많았음.
  - 연령에 따라 평균 4만 엔의 필요자금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공적연금의 지급개시 연령이 점차 올라가고 있기 때문임.
- 노후생활자금 조달을 위해 현재 자금 준비 내용은 불안한 편인가라는 질문에서 ‘불안하다’는 답변

이 74.7%(전화 75.6%)이 ‘안심하고 있다’는 답변 21.6%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 **생명보험(개인연금보험을 포함)의 향후 가입 의향에 대한 질문에 있어서는 ‘추가 가입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1.0%로 전회대비 0.7%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음.**

- 추가 가입이 필요한 피보험자로는 누구인가라는 대상에 대한 질문에서는 세대주가 71.3%로 가장 많았고, 배우자 51.2%, 자녀(결혼하지 않은 취학 중인 아동) 24.8%, 자녀(결혼하지 않은 학업이 종료된 자녀) 7.0%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세대주의 추가가입 보장으로는 질병이나 부상에 따른 치료·입원이 54.4%(전화 56.0%)로 가장 많았으며, 질병이나 재해사고로 인한 최악의 사태 보장에 중점을 두는 상품이 52.2%(전화 53.6%)의 순으로 나타났음.
- 가입 및 추가가입 의향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는 ‘경제적인 여유가 없다’가 54.4%(전화 58.2%)로 가장 많았고, ‘생명보험에 충분히 가입되어 있다’는 응답이 23.9%(전화 22.2%), ‘건강상의 이유나 나이 제한 때문에 가입할 수 없다’는 응답이 22.3%(전화 21.3%) 등의 순임.

〈표 4〉 가입 및 추가가입이 필요한 피보험자(복수응답)

(단위: %)

연도	세대주	배우자	자녀(미혼, 취학 전이나 취학 중)	자녀(미혼, 취학 종료)	자녀(기혼)
2012	71.3	51.2	24.8	7.0	1.3
2009	70.4	49.6	19.2	6.9	1.4
2006	72.4	49.2	18.7	6.8	1.7
2003	73.7	51.6	24.4	8.0	1.5
2002	72.8	55.4	23.6	6.7	2.4

- 우리나라의 생명보험 가입의향에 대해서는 ‘가입할 의향이 있다’ 라는 응답이 35.7%로 나타났으며, 가입 종목은 저축성보험(17.3%), 질병보장보험(15.2%) 등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향후 생명보험이나 개인연금보험 가입 시, 선호하는 가입채널에 대한 질문에서는 생명보험회사의 직원이 30.9%(전화 30.7%)로 가장 선호도가 높았으며, 통신판매 16.4(전화 15.0%), 우체국 12.6%(전화 15.2%)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표 5〉 추가가입 시 희망하는 채널(복수응답)

(단위: %)

연도	생명보험 회사 직원	통신판매	생명보험 회사 창구	우체국 창구나 산업직원	은행 및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창구나 산업직원	직장이나 조합 등	기타	모르 겠음
2012	30.9	16.4	6.6	12.6	3.9	6.2	7.6	12.1	3.7
2009	30.7	15.0	5.4	15.2	3.5	5.1	8.3	12.3	4.5
2006	26.8	15.9	6.4	16.9	3.5	4.5	9.3	10.7	6.1

■ 앞서 살펴본 일본과 우리나라의 생명보험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가구당 생명보험 가입률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향후 추가 가입의향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응답을 보이고 있음.

- 이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이후 경기침체 지속에 따른 신규가입 감소와 보험시장 포화가 가입률 하락세의 주요 원인으로 보임.
  - 이런 보험시장의 전반적인 침체기에도 고령화에 따른 노후소득과 의료비 보장 등과 같은 장수 리스크에 대비한 연금상품에 대한 수요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따라서 생명보험이 고령화 사회의 사회안전망 확충에 있어서 역할 확대가 기대되는 만큼 소비자 니즈에 부합하는 다양한 상품개발이 필요하며, 보험소비자는 늘어난 기대수명만큼 노후소득 등에 대한 사전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kiri**